

사 업 계 획 서

(2019년 - 2021년)

2019. 5.30

사단법인 . 발달장애인협



1. 사업 목적

1)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인 설립의 배경

① 1 회장(법인의 회장)의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 진입 계기

□ 발기인 대표 (사단법인) 인협회 회장)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에 헌신하게 된 계기

사회 복지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2014년 8월부터 활동지원사(활동보조)로 근무하게 되었다. 활동 지원사로 근무를 하면서 이용자들을 제대로 케어 하려면 내가 좀 더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47세의 나이에 만학도로 2015년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다. 대학생이었던 2년동안 수업시간을 통해 노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내가 관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내 본업이었던 활동지원사를 병행하며 최종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하여 심도 있게 배우기로 결정하였다. 대학생이었던 2016년 6월까지 활동지원사로 근무를 해오다, 2016년 7월부터 협력기관에서 책임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나는 무사히 2017년도에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내가 발달장애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내 친구들의 자식들이 발달장애인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고충을 알아왔고, 발달장애인으로써의 삶이 전체 사회구성원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려와 이해를 바란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기회가 생겨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었고, 타 기관들에 있으면서도 발달장애인에게 좀 더 좋은 활동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과 좀 더 자립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였다. 결론적으로 타 기관에서 책임교사로 근무를 하며 발달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복지 센터의 이상향에 도달할 수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복지 센터가 이용자들을 내 자식처럼 케어하는것이 운영비적인 면이나 심적인 면을 따져 보았을 때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발달장애인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자격취득과 동시에 발달장애인서비스 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처음에 3명의 장애인들과 센터를 운영하였다. 3명의 발달장애인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수업

및 서비스가 한정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센터의 홍보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가장 간단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홍보를 생각하였다. 간단한 시설 소개와 나의 생각을 담은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1명 더 이용자가 늘어났다. 오전에 2명에서 3명의 이용자가 ! 센터를 이용 하고 오후에만 따로 한명의 이용자가 ! 을 이용하였다. 몇 개월을 혼자서 12시간씩 매달려 센터를 운영해왔지만, 내가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해주는 수업과 서비스에 자신이 있었기에 힘든 줄도 모르고 센터를 운영해왔던 것 같다. 지금 생각 하면 12시간을 어떻게 근무하였나 싶지만, 아마 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의 긍정적 생각·행동 변화가 그때의 내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른다.

오후반 이용자 A양은 보호자의 부탁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6년 동안 아직 목욕탕 한번 가보지 않았고 혼자서 씻어보지도 못했다고 전해 들었다. 하여 몇 번이나 같이 목욕탕도 가고, 목욕탕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 나의 집에 데려와 씻어주기도 하였다. 물론, 씻을 때에도 교육을 하듯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달고 있었다. 한 달 후, A의 보호자로부터 이용자 A가 혼자 씻을 수 있다고 듣고서는 정말 행복했다는 말 이외에 무슨 말로 이 감정을 표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 다음부터 어떤 경로로 인원이 늘었는지도 모르게 2017년 5월에 1명, 2018년 3월에 1명, 4월에 1명, 11월에 1명이 센터에 등록하였다. 그렇게 현재는 7명의 이용자와 2명의 이용대기자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이것이다. 나와 뜻이 같은 회원 및 후원자·기부자들과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더 나은 수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나는 혹시 이 주간활동 사업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믿고 2년 넘게 아낌없이 후원해주신 이용자 부모님과 내 수업을 좋아하는 이용자들의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용자들을 끝까지 케어하고자 한다.

② 사단법인 설립의 필요성

기존의 단체는 시의 지원을 받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었으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수가 너무 적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지원금이 너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많은 봉사 인력이 필요하지만 소속감을 가진 봉사자를 확보하는 것이 현재의 단체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에 관심있거나 해당 분야에 물질적으로나 직접 봉사하시는 분들의 요청과 더불어 발기인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현재의 단체를 사단법인으로 발전시키려고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③ 사단법인 설립 시 장점

-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7인의 발달장애인이 현재 단체에서 돌봄과 지원을 받고 있으나
향후 사단법인 설립 후에는 약 20인까지 돌봄 서비스 등을 받는 발달장애인의
인원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1년에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7인의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으나,
사단법인 설립 후 회원들의 회비 및 확충된 재산과 기부금을 통하여 약 1억원의
예산으로 20인 정도의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투입되는 선생님이나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비용도 증가하겠지만 그 보다 훨씬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회원들의 참여에 의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일조를 할 수 있습
니다.

사단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현재 학부모회나 발달장애인 관련자들이 우리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도움이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회원 수가 늘어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각종 기부나 참여가 늘어날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참여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금과 대상자 및 봉사인력이 확보됨에 따라
일방적 교육이 아닌 회원과 장애인이 서로 교감하는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해
지고 이를 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사회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내용

-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사업
- 2) 발달장애인 자활 지원사업
- 3) 발달장애인 생활체험 제공사업
- 4)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세부사업계획

-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사업

가. 목적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에 대한 요구와 의지를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 시킴으로써 의미있고 바람직한 일상생활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을 가진 가정의 경우, 보호자가 주간에 돌봄이나 교육, 발달장애인의 활동을 위하여 직장을 포기하거나 다른 일상 생활을 포기하고 돌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가정에서 혼자 돌보기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 보호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며 전문성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일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 발달장애인 센터와의 거리, 기타 보호자 참여프로그램의 부족, 프로그램내용의 불만 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법인도 기존의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대상자가 한정되고 그 인원도 소수만을 배정 받으므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봉사자원인력을 유치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단법인을 출범시켜 많은 발달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려 하며 회원, 부모,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통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의미있는 시간, 보람된 하루를 보내도록 하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나. 방법과 내용

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센터 운영

본 사단법인의 기초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와 프로그램 구성과 추진업무 및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선정, 면담, 협력사 섭외, 야외수업을

위한 준비, 프로그램운영강사 선정, 기타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주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사업을 위한 기본 사무
- ②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고민상담업무
- ③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 식사, 간식, 돌봄서비스

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프로그램운영

- ① 발달장애인 학습능력 향상 지원
- ② 발달장애인 신체능력 향상 지원
- ③ 발달장애인 특기.취미개발 지원

① 발달장애인 학습능력 향상 지원			
영역	학습형	하위영역	기초교육
학습목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학습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단계별 학습영역을 향상시키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한다. 수학 과정에서 자발적인 의심과 질문을 유도하여 스스로 배우고 익히며 삶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습기간 및 교육시간	화, 수, 목요일 매주 1~3시간		
기본사항	대상자 : 20명		
프로그램명	프 로 그 램 내 용		
한문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급 기초 한문 따라 쓰기 - 집중력 & 어휘력 향상 		
인지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학습 (1단계 : 단순 색,모양 분류 -> 2단계: 꽃 이름, 동물 이름 등) - 추상적 개념 획득 - 추상적 개념과 일반적 물체의 매칭 - 반복 학습 : 학습의 완성감과 인내심 향상 		
경제교육	- 장보기 장소 : 합성동 베스트마트		

기대효과	<p>재난 상황/ 위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 스스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기 전 119구급대원 및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시킨다.</p> <p>단순 생식기관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이 바른 성 태도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p>
향후계획	<p>두레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 '사막에서 살아남기'와 같은 주인공이 생존하는 내용을 담은 만화책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이 많다. 이러한 만화책을 활용하여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아이템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하여 수업시간에 토론해 보고 유용한 아이템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재난 상황/ 위급 상황을 대비하는 캠페인이 열린다면 적극 참여한다.</p> <p>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의 발달장애인극단 '멋진 친구들'과 같이 찾아가는 성교육 인형극 혹은 이와 유사한 영상이나 발달장애인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교육에 참여한다.</p>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읽기와 말하기를 익히게 되며 사람에 대한 호감과 물건과 돈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또한 각종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법을 숙지하게 되어 안전한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발달장애인이 하나 씩 무언가를 알아가고 이를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며 눈물 흘리고 감동하게 됩니다.

■ 과거 발달장애인 학습능력 향상지원 사업을 한 경력과 일지를 보면,

□ 학습형으로 본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독 !에서 생활할 때에 기초 예절 교육은 반복적으로 실시한다. 식사하기 전 손 씻기, 식사 전후의 인사예절이 가장 기본적으로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다.

강00은 무엇이든 자신이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발달장애인이었다. 급식을 먹는 것도, 양치질을 하는 것도 자신이 최초로 하지 않으면 과격한 행동양상을 보였는데 수많은 행동지도를 통하여 현재는 차례에 따라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과격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박00이는 지적 1급으로 나이가 35세이다. 처음원에 왔을 때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였는데, 6개월 동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제는 본인의 이름을 쓸 수 있다. 아직도 글자를 작게 쓸 수는 없어 노트 칸 밖으로 글자들이 튀어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교정 중이

활기차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영의 경우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대상자가 아니며, 그 이유는 수영의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정의 역량을 보유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합기도나 요가, 산책의 경우 선정된 발달장애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신체활동을 통하여 기분과 심리적인 안정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3.15 공원 산책을 자주 다니면서 대인 기피증을 없앨 수 있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도 함양됨을 알게 되었으며, 신체활동의 경우 기관 내보다 외부 활동에 취중합니다. 그러나 외부 활동을 하려면 보다 많은 보호자나 인솔 교사가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기존의 지원시스템으로는 보다 다양한 외부활동을 지원하기 어려웠으나 사단법인 설립 후 우리 법인에서는 다양하고 풍요로운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고 많은 회원들의 참여도 예상됩니다.

□ 실제 지원사업 실행 후 체육형으로 본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 공원산책

대체적으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운동하기 싫어하던 이용자들이었다. 매일 점심을 먹고 10~20분동안 길 앞 놀이터나 근교 산책로를 걷는다. 이용자들이 운동하기를 싫어해 억지로 갈 때가 많다. 산책로 내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자연스럽게 운동기구의 올바른 사용 용도를 알게 되었다. 하나의 운동기구 사용시간도 1분씩 하던 것을 3분으로, 이제는 5분으로 늘려 사용하고 있다. 홀라후프 사용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공원 내 발 지압판이 있는데, 처음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던 이용자들도 현재는 선생님께 도움을 먼저 요청하며 지압 운동을 한다.

- 합기도

이용자 김00은 원에 오기 전 택견 5년째 해왔다고 한다. 처음 합기도 도장에서 택견 시범을 보였을 때는 할 줄 아는 것이 사실 없었다. 그래서 시범을 보였을 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인솔 교사는 먼저 자신감 회복을 중점으로 이용자의 변화를 꾀하였다. 일주일에 한 번 이용자 김00의 택견 시범시간 5분을 가졌다. 덕분에 이용자 김00은 택견을 좀 더 연습해오고 합기도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운동하였다. 현재는 택견과 합기도의 발차기나 구르기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자신감과 수업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20190227_175738



20190228_182028



20190313_111235



20190313_111604



20190327_120845



20190327_151153



20190327_151215



20190327_152412



20190328_164200



20190401_154030



20190401_164323



20190402_113418



20190402_145814



20190402_172300



20190404_125821



20190404_132732



20190405_154101



20190405_163827



20190406_161443



20190406_161509



20190406_170313



20190406_170627



20190406_170938



20190406_171048



20190408_123729



20190408_150509



20190408_151031



20190409_112855



20190409_151425



20190409_174534



20190410_112107



20190410_112838



20190410_113833



20190410_141213



20190410_141246

2019년 활동사진

활동 관찰 기록지

날 짜	2019 년 3 월 29 일 (목)요일	화 인	대 표 자
주 활동	손가락과 발가락 머리 예절에 대해	화 인	희 (원)

이름	활동 관찰 내용
김 1	· 굴뚝이 좁아도 만들어서 아홉을 지으니 완성됨이 빨리 보고 섞어 · 손가락과 발가락을 양손으로 사용한다고 함
강	· 손가락 굽려 굴뚝이를 만드는데 크기 굽기 상관없이 빨리 만들려고 함 · 아빠가 식사준비를 하신다며 맛있는 밥한 공기 해주신다고 자랑함
박	· 뽕은 잘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며 굴뚝이 만드느라 작업이 타지 "발가락 머리 예절" 글자가 어려워해서 굽지 않겠다고 함
김 2	· 처음에는 곁을 지으며 만들지 않겠다고 하더니 굴뚝이도 외지 앉았지만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기란 하곤 손바닥으로 흠을 · 발가락 머리 예절 ~ 손가락, 발가락을 정돈하게 함
조	· 처음 굴뚝수집이나 긴장을 해서인지 흠을 제대로 만지지 못함 잘못된 것은 곧잘 만들기도 있었는지 흠을 두드리고 있음. · 알뜰한 편이지 않고 밥 맛있게 잘 먹겠다고 함
이	· 발가락 머리 예절에 대해 읽어 보고 잘 지켜보게 함
김 3	· 도예수업 시간에 강아지 사육사에게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려고 함 · 집에서 식사할 때는 혼자 먼저 식사를 한다고 함

1차: 발가락 머리 2차: 발가락 머리, 수작